

## 국민통합·균형발전 역행하는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 때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경북 10건·광주전남은 無  
 이사 19명 중 영남 9명·호남 1명...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

### 광주·전남 기관 국감 시작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의 '호남 확대'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지유통센터(APC) 지원 사업이 경북지역으로 집중된데다 이사진도 영남 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당시 aT사장이 경북출신인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경북이 선정된 것은 특혜를 넘어 불법적인 선거지원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산지유통센터가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을 하는 만큼 균형적인 연배가 가능하도록 지원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영남 일색인 aT이사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사 19명 중 영남은 9명인 반면, 호남은 1명 뿐이었다. 비상임이사도 10명 중 6명이 영남이고 나머지 4명은 다른 지역이며,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국회는 이날 aT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30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가 전남도를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전남도 국감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어패류 집단 폐사 문제와 전남지역 저수지 지진 내진 설계,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광양항 피해 최소화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째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출구전략도 감감한 상황이라서 국감 파행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등 빈 여당 자리...나주서도 '반쪽 국감' 29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국감'이 됐다.

29일 나주 혁신도시 aT 본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T의 '호남 확대'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야당으로부터 거센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재수 장관이 aT 사장 재임시절(2011년 10월~2016년 8월) 이뤄졌던 탓에 이날 국감에서 야당의 공격은 거셌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해 aT의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거세게 추궁했다. 사업 15건 중 전체의 3분 2인 10건을 경북으로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경남은 2건, 제주·전북·충남 각 1건 등이었으며, 경기·전남·광주는 1건도 지원받지 못했다. 최근 3년간 aT가 지원한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도 비슷했다. 2013~2015년 aT의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모두 55건으로 이중 경북이 23건·경남 3건 등 영남지역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경북의 문경시, 대구경북농업농협, 안동시, 봉화군, 김천시, 성주군 등은 반복적으로 선정돼 지원받은 사업비만 지역별로 최소 53억~최대 115억원에 달했다. 반면 전남·전북은 각각 8건, 제주 6건, 충남 3건, 강원 2건, 경기·광주 각각 1건으로 지역별 편차

## “교류·화합 물길 이어가자” 2016 영호남문화대축전

30일~10월 2일 광주전 일대  
 70여개 농·수·축산물 상생장터  
 국회의원·지사체당 등 대거 참석

■ 국민대통합 영호남문화대축전  
 주요일정

(장소: 광주전 특별무대)

일시	행사
9월30일(금)	·개막식(오전 11시) ·전남·경북 농수산물 331장터 개장
교류의 날	·화개장터 경매
10월 1일(토)	·품바공연 ·나눔의 쌀 전달식 ·관람객 참여 레크리에이션
10월 2일(일)	·영호남문화예술공연 ·지역 대표 동아리공연
상생의 날	·화개장터 경매

※ 농·수·축산물 홍보부스 호남 35개·영남 33개 운영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주도해온 '2016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 광주전 일대에서 열린다.

30일 오전 11시 광주전 특별무대(광주공원 앞)에서 영호남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개막식이 열린다. 광주전에 특별무대를 마련한 것은 교류·화합·상생의 물길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일보와 매일신문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영호남의 만남을 바탕으로 지역간 벽을 허물고 상생발전을 기약,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어가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개막식 참석자들은 행사주제인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문화대축전'을 퍼즐로 완성하는 퍼포먼스로 행사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영호남에서 재배·수확한 특산물을 소개하는 홍보관이 설치되고, '영호남 상생장터'에서는 호남 35개·영남 33개 등 모두 70여 개 지역 농·수·축산물 특산물 부스가 설치된다.

영호남 예술공연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도 풍성하게 펼쳐진다. 30일에는 라이브 음악을 들려주는 가수 주권기씨와 '축제 단골손님'으로 통하는 윤정태씨가 무대에 오른다. 10월1일에는 '오빠야'를 부른 가수 박진희씨와 일그란데 그룹이 클래식을 들려준다.

특설무대에서는 매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과 경매를 진행하는 '화개장터 경매'가 진행된다. 행사 전기간 동안 장기자랑으로 재능을 뽐낸 참가자들에게는 농산물 상품권이 지급된다.

부대행사로는 '전남·경북 농수산물

331장터'가 마련됐다. 전남을 비롯한 경북·대구 등 영호남권 44개 시·군에서 모두 55개 업체가 참가해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했다. 1일에는 경북지역 지진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전남쌀을 기부하는 '나눔의 쌀' 전달식도 열린다. 전남도와 경북도,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참여했다.

본 행사 마지막날인 2일에는 이천호 씨가 품바공연으로 영호남 문화와 농특산물을 구수하게 소개하고 대중가수 유미라씨가 히트곡 '눈 돌리지마'를, 미리 내색소폰 연주단이 화음을 들려준다. 영호남 생활예술공연단체도 각 지역의 특색을 음악으로 녹여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 999번 버스 갈등 상생 핫바퀴 ▶6면
- KIA, 실책 줄여야 가을야구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헌재 “사시 폐지 합헌”...54년만에 역사 속으로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니다”

### 2018년부터 폐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1963년 도입된지 54년 만이다. <관련기사 6면>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 존치 대

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원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원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범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결정에 따라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65기 수습기자 최종합격자  
 김한영, 장영근, 전은재  
**光州日報社**  
 10월 3일 개천절 신문 씁니다

뮤지컬 '빨래' 광주 공연  
  
 10월 1일(토) 오후 3시·7시  
 2일(일) 오후 2시·6시  
 광주주예회관 대극장

매일 아침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청렴에 대한 굳은 의지와 약속,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희망입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